

국제학술지(SSCI)에 등재된 논문을 통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research patterns of domestic library & information professors through analysis of articles covered by SSCI

최 회 곤, 대진 & 한성대학교 강사

Choi, Hee-Kon, Lecturer of Dept. of LIS, DaeJin & HanSung Univ.

본 연구는 제량서지학적 측정을 통해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연구동향을 규명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과학분야 학술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SCI에 게재된 논문을 대상으로 다양한 관점, 즉 저자별, 주제별, 저널별, 출신학교별, 소속대학별, 연도별, 연령별, 핵심전공주제별, 핵심저자별 및 핵심저널별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및 이에 따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1. 서 론

최근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대한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I에 수록된 논문을 토대로 각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물론, 심지어 교수나 연구원들까지 평가함으로써 SC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SCI에 등재되는 학술지는 국제적인 지명도로 인해 전세계 연구자들에 의해 이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자신의 논문이 많이

수록될수록 그만큼 그 연구자의 영향력이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SCI와 동격인,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학술지에 대한 인용색인인 SSCI의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과학분야로 분류되는 문헌정보학의 성격상 SCI보다는,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하여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SSCI에 대한 조사결과 검색된 자료를 토대

로 다각적인 측면, 즉 저자별, 주제별, 학술지별, 출신 대학별, 소속 대학별, 연도별, 연령별, 핵심전공 주제별, 핵심 저자별 및 핵심 학술지별 등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국내 문헌정보학의 국제화 및 이에 따른 연구 방향을 제시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본다.

2. 연구방법

본고에서의 검색도구인 SSCI는 세계 최대 온라인 정보검색시스템인 DIALOG의 Social SciSearch(File 7)를 이용하였으며, 조사방법은 다음과 같다. 즉 주제범위(Journal Subject Category : SC)를 문헌정보학분야로 제한하고, 국가(Geographic Location : GL) 또한 우리나라로 제한하였으며, 조사기간은 별도로 설정하지 않고 SSCI에 수록된 모든 연도(1972년 이후)로 하였는 바, 사용한 탐색식은 다음과 같다.

- S1 SC=Information Science & Library Science
- S2 GL=(South Korea or Korea or Kor)
- S3 S1 and s2

탐색결과 모두 27편이 검색되었으며, 그 가운데 문헌정보학분야는 모두 14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13편은 대체로 전자공학이나 전산계통분야로서 주로 KAIST에서 기고한 논문들이다.

3. 분석결과

국내 문헌정보학자가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게재된 총 14편의 논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참고로, 저자명, 출신대학 및 소속대학명 등은 편의상 영문 첫 문자를 사용하였다.

첫째, 저자별 분석결과 총 6명이 게재하였는데, 게재논문 편수는 1편에서 4편까지 다양하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보면, K¹ 4건, J, P¹, P² 및 O¹이 각각 2건 그리고 K², O² 및 O³가 각각 1건으로 나타났는데, 이 가운데 1편은 공동 저작물이다.

둘째, 주제별 분석결과 정보검색 5편, 목록 4편, 계량서지학 3편, 그리고 분류 2편으로 나타났다.

셋째, 학술지별로 보면 비교적 다양한 학술지에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즉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와 J. of Information Science에 각각 3편, Int'l Information & Library Review와 J.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에 각각 2편, 그리고 Knowledge Organization, Library Quarterly, LIBLI, Program-Automated Library and Information Systems에 각각 1건씩 수록되었다.

넷째, 저자의 출신 대학을 보면, S¹대학 4편, Y대학 3편, S²대학과 J대학이 각각 2편, 기타대학이 3편이다. 참고로, S¹대학의 경우 한 저자가 4편 전체를 게재했기 때문이며, 기타의 경우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생략하였다.

다섯째, 소속 대학별로 보면, K대학과 J대학이 각각 4편, Y대학 2편, 그리고 D대학과 S대학이 각각 1편씩 게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도별로 보면, 1992년 이후 1993년만 제외하고 매년마다 논문이 게재되었다. 특히 1994년부터 1998년까지는 매년 2편 이상씩 게재되었으며 1997년에는 3편이 동시에 게재되었다.

일곱째, 저자들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30대 8편, 40대 5편으로 30~40대가 절대적인 점유율을 보이고 있는 반면, 50대 이후는 단 1편으로 아주 미미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다.

여덟째, 핵심전공에 대한 주제분석 결과, 정보검색 5편, 목록 4편, 그리고 계량서지학 3편 순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핵심저자를 보면,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2편 이상 게재된 저자는 모두 5명으로서, K¹이 4편으로 가장 많고, P¹, P², O¹, J가 각각 2편으로 나타났다.

열째, 핵심 학술지 분석 결과, 2편 이상 게재된 학술지는 총 4종으로서 Information Processing & Management와 J. of Information Science에 각각 3편, Int'l Information & Library Review와 J.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에 각각 2편씩 수록되었다.

4. 결론 및 제언

반세기 역사를 지닌 국내의 문헌정보학이 세계 속의 문헌정보학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국내 학술지보다는 SCI나 SSCI와 같은 대표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국제적인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권위있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야말로 세계속에서 국내 문헌정보학

자들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잣대가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고에서의 조사분석결과 지금까지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영향력은 구미지역에 비해 지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저명한 학자일수록 국제적으로 영향력있는 학술지에 많은 논문을 게재할 것이라는 일반 예상과는 달리, 오히려 아주 미미하기는 하지만 젊은 학자들이 문헌정보학을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국내 문헌정보학이 세계속의 문헌정보학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다음과 같은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첫째, 국내 학술지보다는 SCI나 SSCI 등에 등재된 국제적인 학술지에 끊임없이 논문을 투고하여 게재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한국도서관협회나 관련학회 등에서 국내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엄중심사하여 보다 좋은 논문을 선별해서 이를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둘째, 논문인용시 국내 문헌에 대한 인용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SCI나 SSCI에 등재된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많이 인용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제적인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을 보다 많이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논문에 대한 가치를 그만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국내 학술지를 영문으로 발행하거나 적어도 초록만이라도 영문으로 만들어 여러 나라의 주요기관이나 도서관 등에 배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국내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나라의 학자들에

의해 많이 인용됨으로써 국내 문헌정보학의 위상이 그만큼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의 논문이 SCI나 SSCI에 등재된 국제적인 학술지에 게재될 경우 한국도서관협회나 관련학회 등의 차원에서 소정의 연구비나 장려금 등을 지원 하는 것 또한 국내 문헌정보학자들이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좋은 자극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 김태수, 남영광, 최석두. 1999 '국내 학술지 인용색인을 위한 데이터요소의 기술형태 분석 : 정보관리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16(2) : 183-199.
- 서은경. 1992. '정보검색분야의 지적구조와 변화에 관한 연구 : 영어문화권 저자들을 중심으로'. 정보관리학회지 9(1) : 55-82.
- 유재욱. 1993. '도서관학 학술지에 나타난 인용 형태 분석' 정보관리학회지 10(2) : 145-167.
- 최희곤. 1999. 한국 문헌정보학분야 단행본저작의 내용분석에 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 Atkins, S. E. 1988. 'Subject Trends i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Research, 1975-1984,' Library Trends 36(1) : 633-658.
- Broadus, Robert N. 1977 'The Application of citation Analysis is to Library Collection Building' Advances in Librarianship 7 : 328.
- Cline, Glorid S. 1981 'Application of Bradford's Law to Citation Data', College & Research Libraries 42 : 53-61.
- Garfield, Eugene. 1972. 'Citation Analysis as a Tool in Journal Evaluation', Science 178 : 471-479.
- Line, Maurice B. 1979. 'The Influence of the Type Source Used on the Results of Citation Analysis' , Journal of Document- ation 35 : 325-335.
- Martyn, J. 1964. 'Bibliographic Coupling', Journal of Documentation 20 : 236.
- Peritz, Bluma C. 1981. 'Citation Characteristics in Library Science : Some Further Results from a Bibliometric Survey', Library Research 3 : 47-65.
- Schorr, Alan Edward. 1974. 'Lotka's Law and Library science, Reference Quarterly 14 : 32-33.
- Sellen, Mary K. 1984. 'Bibliometrics in Information Science : A Citation Analysis of Two Academic Library Journaiss', College and Research Libraries 45(2) : 121-132.
- Smith, Linda C. 1981. 'Citation Analysis', Library Trends : (Sum) 83-105.